

“원하는 일자리 없어”... ‘쉬었음’ 1년 새 7만3천명 늘었다

男 7만9천명 증가 女 6천명 감소

청년층 30%는 일자리 미스매치

신규 자영업자 통계 작성 후 최저

공부나 가사일 등의 사정 없이 일자리를 구하는 활동조차 하지 않는 ‘쉬었음’ 계층이 1년 새 7만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층(15~29세) 10명 중 3명은 원하는 일자리를 못 찾아 마치못해 쉬고 있다고 응답했다.

신규 자영업자는 33만1천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비경제활동인구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비경활 중 ‘쉬었음’ 16.3%...청년·노년층 “원하는 일자리 못찾아”

올해 8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622만명으로 1년 전보다 9천명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아니면서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계층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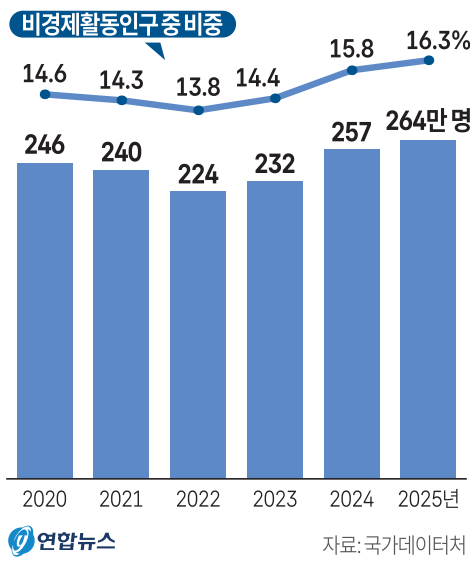
15세 이상 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35.4%로 0.2%포인트(p) 하락했다. 비중은 8월 기준 1999년 조사 시작 이래 최저를 나타냈다.

비중은 70세 이상(28.1%), 60대(18.7%), 15~19세(12.9%) 순으로 높았다.

활동상태별로 보면 ‘가사’ (36.9%), ‘재학·수강 등’ (20.2%), ‘쉬었음’ (16.3%) 순으로 비중이 컸다.

‘쉬었음’ 인구 추이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나 교육·훈련 없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인구(만 15세 이상) 연도별 8월 기준



연합뉴스

자료: 국가데이터처

이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284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7만3천명 늘었다.

남성(210만5천명)에서만 7만9천명 늘었고, 여성(63만6천명)에서는 6천명 감소했다.

‘쉬었음’ 인구는 2022년 23만9천명에서 2023년 23만2천명, 2024년 25만6천명 등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쉬었음’ 이유는 연령층마다 달랐다.

15~29세 청년층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34.1%로 가장 많았다. 작년보다 3.3%p 증가했다. ‘일자리(일거려)가 없어서’도 9.9%를 차지했다.

청년층 일자리가 모자라거나,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 공급이 부족한 ‘미스매칭’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1년 안에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인구는 330만1천명(20.4%)으로 1년 전보다 0.3%p 하락했다.

◇비임금근로자 역대 최소...농림어업 감소 폭 커

올해 8월 기준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합친 비임금근로자는 655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3천명 줄었다.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2.6%로 0.5%p 하락했다.

비임금근로자의 규모와 비중은 모두 2007년 관련 조사 시작 이래 8월 기준으로 가장 적었다. 감소폭은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8월(16만1천명) 이후 가장 컸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3만5천명으로 5천명 감소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역시 42만1천명으로 6만5천명 감소했다.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 136만 7천명(20.9%), 도·소매업 109만3천명(16.7%), 숙박·음식점업 88만3천명(13.5%) 순으로 많았다.

전년 대비 감소는 농림어업(-13만1천명), 운수·창고업(-4만1천명) 등 분야에서 많았다.

반면 숙박·음식점업(3만2천명), 교육서비스(3만1천명), 협회·단체·개인서비스(3만1천명) 등에서는 증가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농림어업에서 줄어드는 모습으로 볼 때 국내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비임금근로자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발암물질 포함된 ‘짹통’ 5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열린 ‘짹통 장신구와 라부부 키팅 등 안전성 검사 결과 브리핑’에서 관세청 관계자가 정품과 가소제가 검출된 ‘짹통’ 라부부 인형을 들어서 보여주고 있다. 관세청은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을 앞두고 짹통 제품의 반입 급증에 대비해 장신구 등 250개 짹통 제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12점에서 남·카드뮴·가소제 등 발암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달러 강세에 주요 자산 동반 하락...셋다운 해소돼야”

안전자산 선호 ↑·자금경색 악화

최근 가상화폐와 금 등 주요 자산의 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주요 원인은 달러화 강세이며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셋다운) 장기화가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5일 관련 보고서에서 “비트코인, 금, 나스닥지수 등 그간 강한 상승 랠리를 이어오던 주요 자산 가격에 대한 과열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사이클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차 불거진 것이 자산 가격 조정의 발미를 제공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달러의 강세 역시 주요 자산 가격 조정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달러화 강세의 배경에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엔·파운드와의 가치 하락 등이 있지만 무엇보다 미 정부의 셋다운 리스크가 가장 주요하다고 봤다.

박 연구원은 “지금의 달러화 강세 흐름이 주춤해지면 일단 단기 자금시장 경색 현상이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 정부의 폐쇄로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는 미 재무부의 일반계정(TGA) 잔고가 줄어들어야 시중 유동성 흐름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며 “시중 유동성 개선을 위해서는 미 정부의 셋다운이 하루빨리 마무리돼야 한다”고 봤다.

또 미 정부의 셋다운이 예상보다 길어지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점도 달러화 강세를 부추겼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원/달러 환율 장중 1,450원 터치...7개월 만에 최고치

5일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대규모 매도세에 장 막판 1,450원을 터치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증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일보다 11.5원 오른 1,449.4원이다. 이날 주간 거래 증가는 지난 4월 11일(1,449.9

원) 이후 약 7개월 만에 최고치다. 환율은 전장보다 56원 높은 1,443.5원으로 출발한 뒤 오름폭을 키워 오후 3시 28분께 1,450원을 찍었다. 장 중 1,450원 역시 지난 4월 11일(고가 1,457.2원) 이후 처음이다.

연합뉴스

국내 10대 기업 시총 올해 104% 올랐다

CEO스코어 조사...주요국 중 ‘증가율 1위’

올해 들어 한국과 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국가들의 상위 10개 기업 시가총액이 지난해보다 모두 상승한 가운데 증가율은 한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등 4개국 내 상위 10개 기업 시가총액 증가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작년 말 761조9천억원에서 올해 10월 말 기준 1천552조5천억원으로 시총이 103.8% 증가했다.

국내 기업 중 시총 증가율이 가장 큰 곳은 두산에너지리트로 조사됐다. 이 기간 두산에너지리트의 시총은 11조2천억원에서 56조8천억원으로 405.4% 급증했다.

그 뒤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239.2%), SK하

인یک스(221.4%), HD현대중공업(108.7%), 삼성전자(100.4%) 등이 이었다.

국내 기업 가운데 시총 100조원을 넘긴 곳은 삼성전자(636조4천억원), SK하이닉스(407조원), LG에너지솔루션(110조7천억원) 등 3곳이었다.

한국에 이은 시총 증가율 2위는 대만이었다. 대만의 10대 기업 시총은 작년 말 1천779조8천억원에서 올해 10월 말에는 2천480조5천억원으로 39.4% 늘었다.

시총을 책임진 기업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계 1위 TSMC였다.

TSMC는 엔비디아, AMD 등 인공지능(AI) 칩 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기업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

특히 TSMC의 올해 10월 말 기준 시총은 1천8

00조6천억원으로 작년 말(1천249조2천억원)과 비교하면 44.1% 증가했다. 한국 상위 10대 기업들의 시총(1천552조5천억원)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은 수치다.

시총 증가율 3위에는 일본이 이름을 올렸다. 작년 말 1천749조6천억원이었던 일본 10대 기업 시총은 올해 10월 말 2천294조4천억원으로 31.1% 상승했다. 일본의 시총 1위 기업은 토요타자동차(464조6천억원)이었다.

미국은 4개국 가운데 시총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올해 10월 말 미국 10대 기업 시총은 작년 말(2경9천891조6천억원)보다 20.9% 증가한 3경6천149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증가율은 4개국 중 가장 낮았지만, 미국 10대 기업은 모두 시총 1천조원을 넘겼다.

연합뉴스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